

9월 1주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함께해요

- **본문 말씀:** 느헤미야 2:17~18 (9월 3일 본문)
- **포인트:** 하나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면 모두 하나 되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 1. 찬양

(새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 2. 기도

언제나 크신 팔로 저희를 안아 주시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사랑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속에서 그 사랑을 깨닫고 찬양하게 해 주세요.

≡ 3. 말씀

느헤미야 2:17~18을 함께 읽습니다(말씀을 3번 읽으세요).

*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반복해서 읽으면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역개정판 성경>

17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18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우리말 성경>

17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 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18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 본문 이해

바사(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이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왔어요.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길 원했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신(은혜로운) 손길로 자신을 도우신 일을 전하며 성벽을 함께 세우자고 말했어요. 유다 사람들은 성벽 재건에 함께하기로 동의했어요.

□ 인도자를 위한 본문 이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장과 같은 곳이에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장소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고 그 결과 심판을 받아 북 이스라엘은 앗수르(주전 722년)에 유다는 바벨론(주전 586년)에 멸망해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처참하게 파괴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70년 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렘 25:12~13)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돌아와요. 1차 포로 귀환은 주전 537년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스룹바벨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웠어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유다 사람들은 성문을 만들어 스스로 보호하려 했지만, 방해 세력 때문에 이루지 못했어요(에 4:11~24 참조). 2차 포로 귀환은 주전 458년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에스라는 신앙 개혁에 힘썼어요. 3차 포로 귀환은 주전 444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느헤미야는 조국의 회복이 더딘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까워했어요(1:2~4). 하나님은 조국의 회복을 간절히 고대하며 기도하던 느헤미야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바사(페르시아) 아닥사스다왕이 느헤미야의 사정을 듣고 적극적으로 돕고 나섰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어요. 성벽이 든든히 세워져야 예루살렘성 안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성전도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성벽 건축은 꼭 필요한 일이었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벽 건축이라는 선한 뜻을 위해 마음을 쏟았던 느헤미야를 하나님은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유다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 4. 나눔

1)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자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17절) 그는 어떤 말을 전하며 사람들을 설득했나요?(18절)

■ 저학년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도록 사람들에게 어떤 말로 용기를 주었나요?(18절)

■ 유아·유치

느헤미야는 어떤 말로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게 했나요?(18절)

□ 질문 가이드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소망을 품고 고국 땅을 밟았어요. 바사(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이던 그가 왕의 허락과 도움을 받아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기까지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도우셨어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전했어요. 느헤미야의 마음을 생각하며 본문을 살펴보세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바사(페르시아)에서 이곳까지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믿음의 고백을 담아

유다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비전과 확신을 공유하며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졌지만 성벽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성전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을 먼저 정돈해야 했어요. 성벽이 세워져서 성안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면 성전도 잘 관리될 수 있었어요. 백성은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그들이 처한 문제에 공감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함께하심을 확신했기에 모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2)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다시 세우고자 마음을 모았듯, 우리 가족이 마음을 모아 다시 시작할 일은 무엇인가요?

■ 저학년

도중에 포기했던 일 중에서 내가 믿음으로 용기 내어 다시 시작할 일은 무엇인가요?

■ 유아·유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용기 내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힘내세요!”라고 말해 보세요.

□ 질문 가이드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지금까지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가족이 마음 모아 할 일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용기도 주시고, 필요도 채우시고, 이루게 하실 거예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상황을 여시고 바사(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부임하게 하셨어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세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는 유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경험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며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뜻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가족과 함께하시며 도우신 일을 돌아보며, 서로 격려해 보세요.

≡ 5. 감사하기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하시며 선하신 손길로 나와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리세요.

≡ 6. 기도

하나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저희 마음을 만지시고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저희 가족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기꺼이 하나 되어 쓰임받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